

문화유산 해설문 영문 번역 용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 전공 박사과정

강혜원

목 차

1. 서론
 2. 문화유산 해설문 영문 번역 용례 분석
 3. 문화유산 해설문 영문 번역 용례 데이터베이스 설계
 4.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활용 사례
 5. 결론
-

* 본고는 본 연구자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1. 서론

문화유산은 한 국가 또는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자산이다.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그 자체가 지니는 학술적·예술적 가치는 물론, 하나의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문화적인 배경 등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정보를 탐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유산 안내판은 문화유적지 또는 문화유산이 위치한 현장에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매체일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교육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안내판의 영문 해설문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 정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해설문을 통해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철자의 오기나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과 같이 기초적인 오류가 많다. 둘째,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영문 해설문 작성시 참고할만한 번역 기준이나 지침의 부재로 인해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의 작성 및 번역 등의 제반 과정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영문 해설문 전담 기관이나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은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작성되고, 이러한 현실에서는 해설문 작성에 기반이 되는 기본 원칙을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¹ 이에 더해 영문 해설문 작성에 필요한 용어집이나 참고자료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² 번역자는 알맞은 번역어를 찾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번역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번역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번역자 개인의 주관이나 취향에 따라 영문 용어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번역물에 따라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거나 때로는 오역으로 인해 잘못된 지식이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는 전체 문화유산 안내판 영문 해설문의 일관성 결여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1 박경희, 정호정, 엄행일, 신지선, 한국문학번역원,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분야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2007, 36~38쪽.

정호정, 이상원,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국립국어원, 2013, 135~136쪽.

2 외국인 독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이 지니는 특성을 소개하고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 혹은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어휘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영문 해설문은 국문 해설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용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문화유산의 특징과 의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자는 현재의 영문 해설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안내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문 용어와 그에 대응하는 영문 번역 용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차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용어 영문 번역 용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적용한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정보 구축 연구’의 산출물 시범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활용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2. 문화유산 해설문 영문 번역 용례 분석

현행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의 용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문화재청에서 2013년에 실시한 ‘전국 문화재 안내판 현황 및 안내문안 전수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였다.³ 전수조사 결과물 중 동일한 해설문을 가진 안내판과 길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기능성 안내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분석 대상으로 활용할 해설문을 추려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문과 영문 해설문의 어휘 분석을 위하여 국문 해설문만 있고 영문 해설문이 없는 안내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860편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안내판의 국·영문 해설문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는 영문 번역 용례 추출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확보한 영문 해설문을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⁴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문화유산 용어로서 의미가 있는 모든 단어 및 어구에 태깅을 실시하였다. 국문 해설문과 영문 해설문을 대조하면서, 각각의 영문 번역 용례에 대응하는 국문 용어를 속성으로 부여하고, 영문 해설문의 용어가 국문 용어의 적정한 번역어가 아닌 경우에는 ‘valid’ 속성을 “no”로 입력하여 오류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문 번역 용례들을 보다 용이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국문 용어 가운데 임의로 우선어를 선정해서 속성으로 부여하였다.

3 본 연구자는 2014년 『문화재 안내표기(설명문 등) 및 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과정을 통해 현행 문화유산 안내판의 국·영문 해설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의 전수조사는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중 안내판이 설치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주로 박물관 등에 전시되는 동산 문화재는 안내판이 따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XML은 원시 자료를 전산 가독형 데이터로 변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마크업 언어 가운데,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이다. 김현, 「고문헌 자료 XML 전자문서 편찬 기술에 관한 연구」, 『고문헌연구』, 제29호, 2006, 190쪽.

```

<?xml version="1.0" encoding="UTF-8"?>
<
<항목 ID="11165" 유형="음향">
<문화재명칭>경주 석굴암 석굴</문화재명칭>
<메타데이터>
<시도>경북</시도>
<시군구>경주시</시군구>
<종별>국보</종별>
<번호>제24호</번호>
<안내판설치>O</안내판설치>
<문화재분류>사찰문화재</문화재분류>
</메타데이터>
<문명>
<국문>
이 <문화유산>석굴암</문화유산>은 <개념>신라</개념> <인물>경덕왕</인물> 10년(751)에 당시 재상이던 <인물>김대성</인물>이 처음 건립하였는데 건립 당시에는 '문화유산'석불사</문화유산>'라고 불렀다. <인물>경덕왕(재위 742 ~ 765)</인물>때에는 <문화유산>석굴암</문화유산> 외에도 <문화유산>불국사</문화유산><문화유산>황룡사대불</문화유산> 등 많은 문화재들이 만들어져 <개념>신라</개념>의 불교예술이 전성기를 이룬다. 석굴의 평면 구조는 앞쪽이 네모났고 뒤쪽은 둥글다. 석굴에는 <개념>본존불</개념>을 중심으로 둘레에 <개념>천부상</개념><개념><개념>보살상</개념><개념>나한상</개념><개념>거사상</개념><개념>사천왕상</개념><개념>인왕상</개념><개념>팔부신중상</개념> 등이 조각되어 있다. <공간>연도</공간>나 <공간>중국</공간>의 <개념>석굴 사원</개념>과는 달리 화강암을 인공으로 다듬어 조립한 이 석굴은 불교 세계의 이성과 과학기술 그리고 세련된 조각 솜씨가 어우러진 걸작이다. <문화유산>석굴암</문화유산> 석굴의 구조는 입구인 직사각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폭도 역할을 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360여 개의 넘직한 통로 둥근형태의 주실 천장을 교묘하게 축조한 것이다. 이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드문 뛰어난 기술이다. <문헌> 『삼국유사』 </문헌>에 <인물>김대성</인물>이 전세의 부모를 위하여 건립했다고 전하는 <문화유산>석굴암</문화유산>은 <개념>신라</개념> 예술의 극치이자 동양 불교미술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어, 1995년 <개념>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개념> 목록에 등록되었다.
</국문>
<영문>
<Eng kor="석굴암" valid="no">Seokguram grotto</Eng> was first constructed by Prime Minister <Eng kor="김대성">Gim Dae-seong</Eng> in 751, the 10th year of <Eng kor="신라 경덕왕">Silla King Gyeongdeok</Eng>. Originally, it was called Seokbulsu. The layout of the grotto shows a rectangular <Eng kor="전실">antechamber</Eng> and a round main hall. In the rotunda hall sits a majestic Buddha carved in granite. There are various figures surrounding the Buddha. Two <Eng kor="천부">Devas</Eng>, two <Eng kor="보살" valid="no">Bodhisattvas</Eng>, ten standing <Eng kor="나한" valid="no">Arhats</Eng>, an eleven-headed <Eng kor="관음보살">Avalokitesvara Bodhisattva (the Bodhisattva of Boundless Mercy)</Eng>, <Eng kor="팔부신중">Eight Guardian Gods</Eng>, <Eng kor="인왕">Vajrapani</Eng> and <Eng kor="사천왕">Four Guardian Kings</Eng> were sculptured on the wall behind the <Eng kor="본존불">main Buddha</Eng>. According to the <Eng kor="삼국유사" valid="no">Samgukyusa</Eng>, <Eng kor="김대성">Gim Dae-seong</Eng> founded Seokguram for the parents of his previous life. Seokguram represents not only the supremacy of <Eng kor="신라">Silla</Eng> arts, but also is regarded as the best oriental Buddhist work. Thus along with Bulguksa, this grotto was designated in 1995 as the <Eng kor="세계문화유산" valid="no">world cultural heritage</Eng> by the UNESCO.
</영문>
</본문>
</항목>

```

【표 1】 안내판 해설문 XML 문서 작성 예시

본 연구에서 오류 사례를 분류할 때 사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오역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문화재 지정명칭과 안내판 영문 해설문에 사용된 명칭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관명 등 공식 영문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규칙』⁵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이 이미 정해진 번역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셋째, 철자나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와 같이 표면적으로 명백하게 오류임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XML 전자문서 작성의 결과물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⁶ 총 3,648개의 국문 용어에 대한 16,137건⁷의 영문 번역 용례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번역 용례는 다시 ‘오류 사례’에 해당하는 7,039건과 ‘유효 번역 용례’에 해당하는 9,098건으로 나눌 수 있었다.⁸

‘오류 사례’로 분류된 7,039건은 총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분석된 오류의 유형 및

5 제정 2013.7.26.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일부개정 2014.10.17. 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6 XML 전자문서 작성의 결과물은 XML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XML-enabled Database Management System)인 MS SQL™을 사용하여 분석 작업에 필요한 국문 용어 및 영문 번역 용례를 추출하였다.

7 동일한 영문 번역 용례가 여러 해설문에서 등장하는 경우, 각각의 건수로 처리하였으며, 중복 출현 횟수를 제외한 영문 번역 용례는 총 7,442건이다.

8 중복 출현 횟수를 제외하면 ‘유효한 번역 용례’는 2,733건, ‘오류 사례’는 4,709건이다.

유형별 검출 건수는 아래의 【표 2】와 같다.⁹

오류 유형		건수
① 문화재 지정명칭과 불일치하는 경우		144
②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규칙과 다른 형태의 표기		3,126
③ 기관명 등이 공식 영문명칭과 불일치하는 경우		27
문자 표기상의 오류	④ 철자 오기 또는 띄어쓰기 오류	1,360
	⑤ 대소문자 표기 오류	125
	⑥ 로마자 표기 오류	1,243
	⑦ 원어 발음 표기상의 오류	47
	⑧ 주소의 영문 표기 오류	175
번역상의 오류	⑨ 오역 및 부적절한 표현	309
	⑩ 의미역 없이 음역만 표기된 경우	302
	⑪ 문법상의 오류 ¹⁰	35
⑫ 기타 오류		146
합계		7,039

【표 2】 영문 번역 용례 오류 유형 및 건수

‘유효 번역 용례’에 해당하는 9,098건은 총 1,583건의 국문 용어에 대한 영문 번역어들이며, 모든 번역 용례들은 각 번역 용례가 지칭하는 국문 용어를 기준으로 목록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국문 용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영문 번역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번역어에 따라 전체를 음역한 경우, 영어 문화권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로 대체한 경우, 한국어 용어의 의미를 설명식으로 번역한 경우, 음역과 설명식 번역을 병기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번역 용례들이 나타났다. 연구 과정에서 추출된 용어 중 가장 많은 수의 번역 용례가 나타난 ‘임진왜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 【표 3】과 같다.

국문	번역 용례 예시	
임진왜란	음역	• Imjin War

9 ‘오류 사례’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은 단지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현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유사한 오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10 본 연구에서 오류 사례를 분류할 때는 내용상의 문제점이나 영문 문법상의 오류와 같이 개인의 주관에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은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구두법이나 단·복수의 사용과 같이 확실하게 오류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문장의 일부가 누락되어 비문이 된 경우 등 분석 과정에서 문법상의 오류 사례가 부수적으로 발견되었다.

설명식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panese invasion of 1592 • Japanese Invasion •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 Japanese Invasions (1592-1598) • Wae invasion •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 Japanese Invasion in 1592
음역 + 설명식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jin Wa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표 3】 ‘임진왜란’의 영문 번역 용례

분석 결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거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데 불필요하게 많은 번역 용례가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오역과 표기상의 오류 등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결과는 국문 문화유산 용어에 대한 합의된 번역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문 용어에 대한 영문 번역어를 표준화하고 문화유산 영문 용어 전문사전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견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준화는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일이며, 국문 용어에 대한 영문 번역어는 기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표준화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같은 국문 용어라도 그 용어가 쓰인 곳이 제목인지 해설문인지, 또는 같은 글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 등 해설문의 형태와 문맥에 따라 사용되는 번역 용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문 용어에 대한 번역어를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장 번역어의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번역학계에서는 ‘공공번역’¹¹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분야별 번역에 필요한 용어집 및 번역 지침 마련 등 체계적인 번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학 분야의 경우, 국립국어원,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국가기관들이 주도하여 영문 표기 지침 및 전문 용어의 번역어 목록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¹²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관련 기관에서 검증된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면서 용어 사용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수요와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1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 정호정, 이상원(2013), 8쪽.

12 이러한 영문 표기 지침 및 번역어 목록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국립국어원,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279호, 2015.12.29 제정)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2013.7.26. 제정, 2014.10.17. 일부개정)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 문화재청, 2014.

국립중앙박물관, 『201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명칭 용례집』, 국립중앙박물관, 2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http://glossary.aks.ac.kr/>)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및 번역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십 년간 전개되어온 해외의 선진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랜 기간 동안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수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다수 찾아볼 수 있으며,¹³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사용자들은 기존에 수집된 용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키기도 하며, 표준화된 용어나 표현을 찾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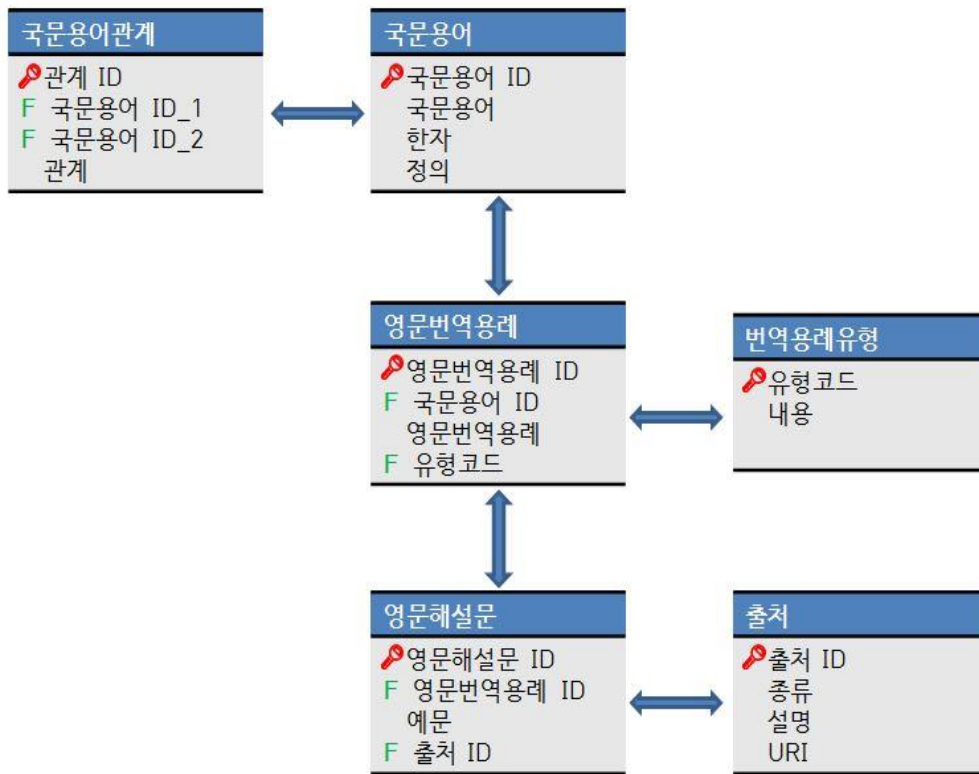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과 관련해서도 가장 시급한 용어 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화유산 해설을 위해 어떤 용어가 필요하고, 그 용어들은 현재까지 어떻게 영문으로 표현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축적된 연구 내용을 토대로 국문 용어의 다양한 영문 번역 용례들을 수집하여 유효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국문 용어와 영문 번역 용례를 정보화하여 공유하고, 관련 연구의 토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는 문화유산 관련 용어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문화유산 해설문 영문 번역 용례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화유산 해설문 영문 번역 용례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앞서 서술한 현행 문화유산 안내판의 영문 해설문을 분석한 결과와 해외 선진 사례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국문 용어들에 대한 다양한 영문 번역 용례와 각 국문 용어 및 번역 용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단지 수집된 다양한 번역 용례들을 대량으로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영문 해설문 작성에 효과적인 보조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 용어 권장 번역어 목록 마련과 같이 보다 전문적인 후속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 국문 용어, 2) 국문 용어 관계, 3) 영문 번역 용례, 4) 번역 용례 유형, 5) 영문 해설문, 6) 출처 등 총 여섯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며 각 테이블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3 이와 같은 사례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의 통합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인 IATE (InterActive Terminology for Europe), 캐나다 번역국 (Bureau de la Traduction)의 전문용어 표준화부(Terminology Standardization Directorate), 중국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全国科学技术名词审定委员会)의 중국 규범 용어 데이터베이스(중국규범술어) 등이 있다. 정호정, 이상원(2013), 162~164쪽, 172~173쪽, 190~191쪽.



【그림 1】 데이터베이스 구성 테이블 및 구조

국문 용어 테이블은 국문 용어와 각 용어의 한자 표기, 그리고 간략한 정의 등 각 국문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의한 구조에 따라 국문 용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면 【표 4】의 예시와 같다.

국문용어 ID	국문용어	한자	정의
1	불국사	佛國寺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토함산 서쪽 중턱에 있는 신라시대의 절.
2	불국사 삼층석탑	佛國寺 三層石塔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경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3	국보	國寶	보물급의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 문화재.
4	다보탑	多寶塔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경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표 4】 국문 용어 테이블 예시

국문 용어 관계 테이블은 국문 용어들 간의 관계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등가관계, 상하관계, 연관관계 등 용어 간의 의미적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색 상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문 용어 간의

관계성을 기술하는 데에는 hasLT, hasBT, hasRT와 같은 세 가지 지시기호를 사용하였다.

hasLT는 Lead Term, 즉 대표 표현을 가진다는 의미로, 시소러스 구축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우선어의 개념을 차용하였다.¹⁴ 문화유산 해설문에서 추출한 국문 용어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단 한 가지의 용어가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칭이나 이칭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문 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영문 번역 용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수 대 다수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국문 용어와 영문 번역 용례 간의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표현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문 용어	지시기호	국문 용어
석가탑, 무영탑	hasLT	불국사 삼층석탑
석가, 석가모니, 석가모니부처	hasLT	석가모니불

【표 5】 등가관계에 해당하는 국문 용어 예시

hasBT는 Broader Term, 즉 상위어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상하관계는 의미상 한 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경우에 부여하였다. hasRT는 Related Term, 즉 관련어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국문 용어를 관련어로 연결할 때에는 용어 간의 관계가 계층적이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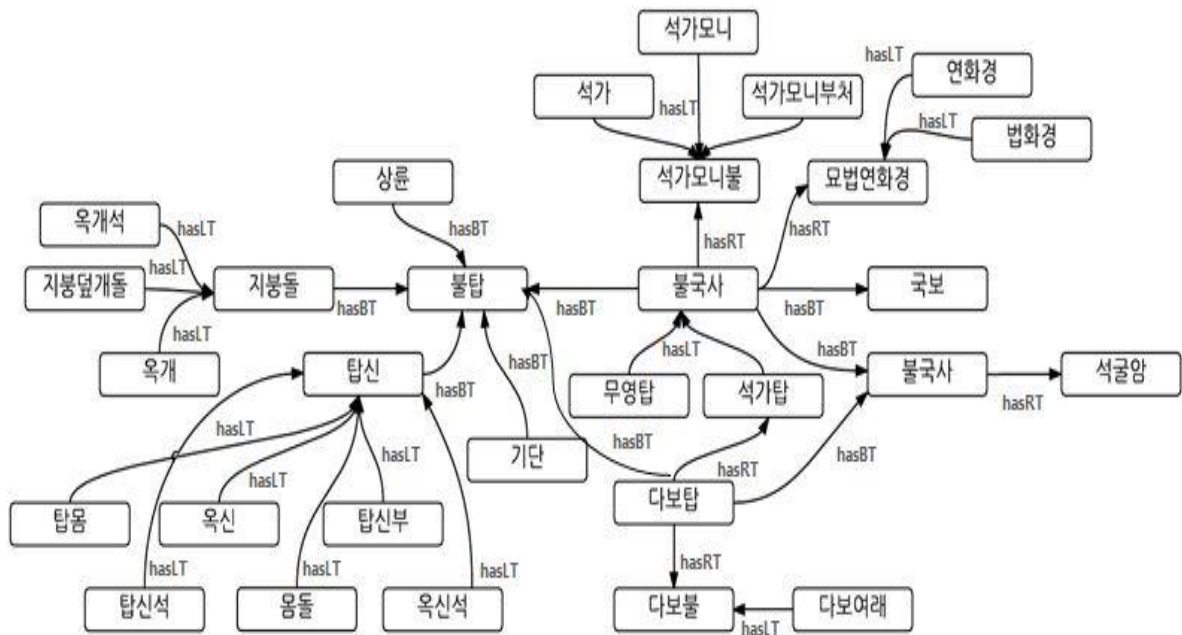
국문 용어	지시기호	국문 용어
불국사 삼층석탑	hasBT	국보
불국사 삼층석탑	hasBT	불국사
불국사	hasRT	석굴암
석가탑	hasRT	다보탑

【표 6】 상하관계 및 연관관계에 해당하는 국문 용어 예시

이와 같이 국문 용어간 동의어, 상·하위어, 관련어 등의 관계성을 명시한 것은 영문 번역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다양한 국문 용어들을 hasLT라는 지시기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용어를 출발점으로 선택하더라도 등가관계에 있는 다양한 영문 번역 용례들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하위어 및 관련어의 정보를 통해 다른 번역 용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불국사 삼층 석탑 및 다보탑의 안내판 해설문에 등장하는 국문 용어를 대상으로, 국문 용어 간의 관계를 상술한 방식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14 시소러스 구축 방법론에서 동의어는 등가관계로 표현되며, 등가관계는 색인작업시 복수의 용어가 동일 개념을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어 및 비우선어 간의 관계를 말한다. 최석두, 「한글 시소러스의 구축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48쪽.



【그림 2】 국문 용어 관계 예시

영문 용례 테이블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영문 번역 용례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사용자가 다수의 번역 용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유형 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1”로 표시된 유형은 ‘유효 번역 용례’ 중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에 해당하며,¹⁵ “2”로 표시된 유형은 앞에서 서술한 영문 번역 용례의 분석 과정에서 오류로 분류되지 않은 ‘유효 번역 용례’에 해당한다. “3”으로 표시된 유형은 영문 번역 용례의 분석 과정에서 ‘오류 사례’로 분류된 번역 용례에 해당한다. ‘오류 사례’로 분류된 번역 용례에는 오류 유형에 따라 알파벳 코드를 덧붙여 어떤 오류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유형 코드로 기술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각각의 영문 번역 용례가 ‘유효 번역 용례’인지 ‘오류 사례’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문 용어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유효한 것으로 분류된 영문 번역 용례들 중에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한 용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미 검출된 오류 사례들이 왜 잘못된 표현인지에 대한 정보를

15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적용)에 의하면,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4장 보칙 제28조(문화재명칭 명명 요소 목록)에서는 ‘별표’로 제시된 문화재명칭 명명 요소의 영문 번역 예시 이외에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기준규칙』이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가 ‘유효한 번역 용례’ 중에서 반드시 우선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화재 지정명칭에 대한 표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는 것이 권장되고, 『기준규칙』과 같이 관련 기관이 제정한 번역 지침의 표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유형코드를 사용하였다.

함께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문맥과 용처에 따라 적절한 번역 용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잘못된 표현의 사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해설문 테이블은 영문 번역 용례가 사용된 해설문의 본문 텍스트와 출처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동일한 영문 번역 용례라 하더라도, 문장 안에서 사용된 형태에 따라 설명 방식이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번역 용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례가 사용된 예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영문 번역 용례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서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출처 테이블을 통해 해당 예문이 추출된 출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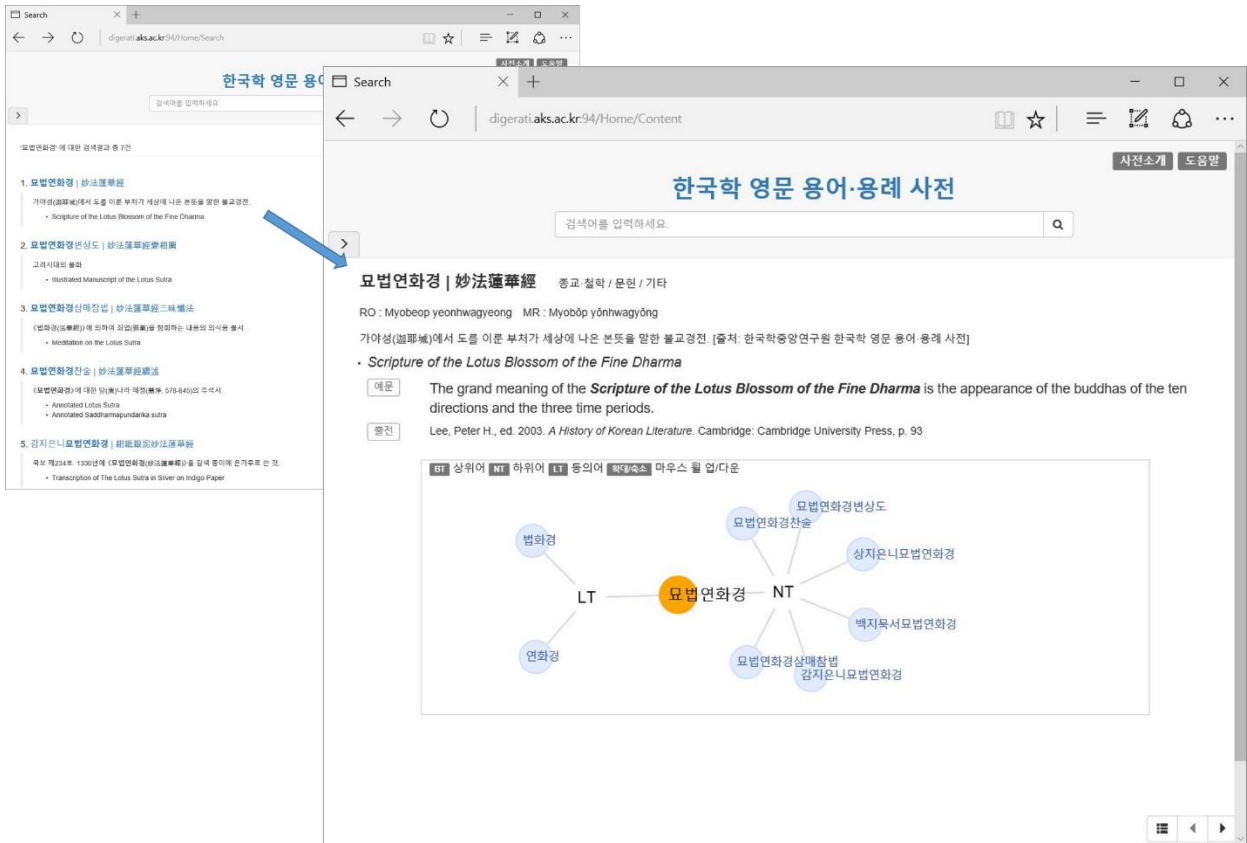
4.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활용 사례

본 연구자는 상술한 영문 번역 용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Glossary of Korean Studies)」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제안하였으며, 동 연구원에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정보 구축 연구’의 산출물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 자료 번역을 보조하는 영문 용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학 전문 서적을 대상으로 한국학 영문 용어와 예문을 추출하여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이후 ‘용례사전’)」을 구축한 바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용례사전에 수록된 영문 용어와 예문을 대상으로 한국학 주요 분야별 전문성 및 영문 용어의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제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약 7,000여 건이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된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정보 구축 연구’를 통해서 총 20,081건의 영문 용어와 4,453건의 예문 데이터가 추가로 구축되었다. 상술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기존 용례사전의 데이터와 2014-2015년 연구의 신규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동의어 및 상·하위어 등의 연관 정보를 수정 또는 증설하여 사용자의 용례사전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되었다.¹⁶

영문 번역 용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는 국문 용어 상호간의 의미적인 연관관계 정보를 활용하여, 하나의 국문 용어가 검색결과로 도출될 때 해당 국문 용어와 연결되는 다른 국문 용어가 함께 제시된다. 예를 들어, 불교 경전의 하나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검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16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적용된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정보 구축 연구 산출물 시범 서비스는 참조 사이트(<http://digerati.aks.ac.kr/K2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용례사전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온라인 서비스될 예정이다.



【그림 3】 '묘법연화경' 검색 결과

검색 결과는 문자열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완전 일치하는 국문 용어가 상단에 노출되며, 검색 결과 중 원하는 국문 용어를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정보에는 한자 표기, 로마자 표기, 국문 용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 등 국문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상단에 제시되고, 국문 용어에 대한 영문 용어와 해당 용례가 사용된 예문, 그리고 용어 및 예문의 출처 정보가 차례로 제시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국문 용어 관계 테이블에서 hasLT, hasBT 등의 지시기호로 기술된 국문 용어 간의 의미적인 연관 관계는 하단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묘법연화경'의 경우, '법화경', '연화경'이라는 동의어와 '묘법연화경변상도', '백지묵서묘법연화경' 등의 하위어가 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국문 용어 간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최초 접근점에서 용어 간의 관계에 따라 이동하며 필요한 국문 용어에 대한 번역 용례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적용한 용례사전은 이전의 서비스와 달리,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의 관계망 속에서 번역 용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번역 용어 탐색·비교·선택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행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의 용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화유산 해설문을 비롯한 한국학 관련 자료의 영문 번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문 번역 용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것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용어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국의 역사·문화 용어의 영문 표기에 대한 연구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재 공공번역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국가번역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데는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번역 관리 프로세스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공번역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와 번역 지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공공번역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2차 연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자료를 미리 발굴·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국문 용어 간의 의미적인 관계성을 명시함으로써, 번역자가 기존에 사용된 영문 번역 용례와 관련 용어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나의 용어를 검색했을 때 그 용어와 관련성을 지니는 다른 용어들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번역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번역 보조도구로서의 효용성 외에,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기 구축된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그 내용을 검증하고, 문화유산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로 삼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완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장하고 수정하면서 진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작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번역자 혹은 번역학계와 같은 단일 그룹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관련된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건축학, 민속학, 음악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 정보와 그 지식 정보들 사이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영문 번역어들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다방면의 학제간 소통이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 정보를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언어 전문가, 용어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해, 수집된 번역 용례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 역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추후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고, 사용자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찾기(wayfinding)’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유산 용어 영문 번역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현, 「고문헌 자료 XML 전자문서 편찬 기술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제29호, 2006, 183~230쪽.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 문화재청, 2014.

박경희, 정호정, 염행일, 신지선, 한국문학번역원,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분야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2007.

박현주, 「문화재용어사전의 구축 현황 및 번역보조도구로서의 활용성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4, 59~94쪽.

정호정, 이상원,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국립국어원, 2013.

정호정, 임현경, 『공공번역 표준화의 모델 -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한국문화사, 2013.

최석두, 「한글 시소러스의 구축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http://thesaurus.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http://glossary.aks.ac.kr/>)